

# 엔터테인먼트

## Entertainment

### 김승우 또 카메오 '외조'

### MBC '역전의 여왕' 출연

연기자 김승우가 아내 김남주가 출연하는 MBC 월화드라마 '역전의 여왕'에 카메오 출연한다.

김승우는 8일 방송되는 이 드라마의 7회차에 회사 경비원으로 깜짝 등장한다. 김승우는 아내 김남주가 연기하는 황태희가 술취한 틈장(박시후)을 부축하는 중 도움을 주는 경비원 역할을 맡았다.

이 드라마에는 개그맨 이봉원도 2일 방송된 6회차에 인구주택조사원으로 카메오 출연했다. 이봉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된 남자 주인공 봉준수(정준호)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

## 『애리는 외박 중』 문근영

# ‘국민 여동생’이 돌아 왔다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에서 차가운 매력을 보여줬던 배우 문근영이 발랄하고 순수한 본연의 캐릭터로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문근영은 KBS 2TV의 새 월화드라마 '애리는 외박 중'에서 두 번의 결혼을 감행하는 주인공 위매리를 연기한다. 매리는 속칭 88만원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등록금을 마련 못해 대학교를 휴학하고 비정규직을 전전하면서 삶의 희망을 잃지 않는다.

그는 "많은 분들이 '다시 귀엽고 깜찍한 걸 하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런 의도는 없다"며 "이번 역할도 은조처럼 재연기의 폭을 넓히는 캐릭터"라고 강조했다.

"'신데렐라 언니'의 은조도 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선택한 게 아니라 해보고 싶어서 선택한 역할이에요. 문근영이 연기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늘기를 바라면서 급작스럽게 이전 것을 탈피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송 전 홍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제가 믿고 생각하는 대로 가야죠."

그는 "매리란 캐릭터가 매력적이고 이걸 어떻게 재미있게 연기할 수 있을까 고민할 뿐"이라며 "많은 감독님과 제작자, 작가, 배우분들이 문근영이란 배우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다"고 다부지게 말했다.

'매리는 외박 중'은 이종 가상결혼을 통해 젊은이들의 꿈과 사랑을 그린 로맨틱 드라마로, 2004년 드라마로 제작돼 인기를 끈 만화 '풀하우스'의 원작자 원수연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했다. 문근영은 작품 선택의 이유로 상대역 장근석을 꼽았다.

"대본도 매력적이지만 상대배우가 장근석이란 점이

작품선택의 큰 이유가 됐어요. 예전부터 같이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달달하고 재미있는 작품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는 "나도 같고 겪어왔던 상황이 비슷해서 첫 촬영부터 편하게 했다"며 "근석씨가 배려심이 깊어서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혼관을 묻는 질문에 문근영은 25살이 넘으면 결혼을 아예 안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원래 목표가 24~25살에 결혼하는 거였어요. 가장 예뻐 때 결혼하고 싶거든요. 지금 와보니 좀 힘들 거 같아요. 올해 안에 완벽한 사람을 만나면 결혼을 할 수도 있지만 25살이 돼도 못 하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올해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와 연극 '클로저'까지 쉴 틈 없이 연기활동을 한 그는 "연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올해 작품을 많이 했다"고 했다.

"'신데렐라 언니'가 끝나기 전부터 빨리 다음 작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데렐라 언니'를 하면서 너무 재미 있었거든요. 중간에 힘들어서 운 적도 많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배움을 얻으면서 너무 재미 있더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연기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좋아요. 앞으로 더 많은 걸 해보고 싶어요."

“연기한다는 자체가 행복해요

결혼이요?

25살까지 못하면 독신도 좋아요”



/연합뉴스



### 데뷔 20주년 기념음반 발매

## 신승훈

# “총 1700만장 판매...과분한 상복 성공했지만 노총각 신승훈엔 미안”

“격변하는 가요계에서 20년간 쉼 없이 활동했으니 '가수 신승훈'으로선 성공적인 삶이었어요. 하지만 '인간 신승훈'에선 미안해요. 이제는 '인간 신승훈'에 대한 배려도 할 겁니다. 하하."

1990년 11월 1일 데뷔한 싱어송라이터 신승훈은 20주년을 맞은 소회를 묻자 이렇게 말했다. '국민 가수'란 칭호를 얻으며 총 누적 음반판매량 1천700만장을 기록했고 상복도 많았지만 결혼 등 개인적인 삶에는 소홀했다는 의미였

다. "20주년이나"가 아니라 "20년 밖에"라며 "할 일이 너무 많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히딩크 감독님의 말처럼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그는 20주년을 맞아 기념 음반 '베스트 컬렉션&트리뷰트 앨범'을 데뷔일에 맞춰 발표했다. 또 '더 신승훈 쇼-마이 웨이(My Way)'라는 타이틀로 월드투어도 준비 중이다. "보이지 않는 사랑"을 녹음하는데 후배가 "몇살 때 가사를 썼냐고 묻더군요. 다시 가사를 읊미하니 20대의 제가 어떻게 그런 감성의 가사를 썼는지 정말 조숙했더라고요. 또 '그후로 오랫동안'을 가장 잘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들으니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너가 있을 뿐'을 관조적

으로 잘 불렀더라고요." 음반은 신곡 1곡과 새로이 편곡해 부른 히트곡 등 13곡, 후배 가수들이 그의 노래를 재해석해 부른 7곡이 총 2장의 CD에 각각 담겼다.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신곡인 뉴에이지 발라드 '유 아 소 뷰티풀(You are so beautiful)', 절친인 일본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가 '가짜'를 연주했다. 그는 처음 시도한 후배들과의 작업을 통해 마음의 큰 변화가 생겼다고 했다. "다비치를 통해 제 노래가 여자에게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또 후배들과의 교류를 통해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음악인들도 생겼고요. 앞으로는 작곡 및 프로듀서 활동도 많이 하려고요. 신인 발굴도 할 겁니다." 그는 20주년을 맞아 2003년부터 시작한 자신의 공연 브랜드인 '더 신승훈 쇼'를 들고 국내외 팬들을 찾아간다. '마이 웨이'란 부제를 붙여 내년 6월까지 국내 11개 도시와 해외를 돈다. /연합뉴스

- 누구나 원하지만 누구도 얻지 못했던 새로운 뉴스
- 깊이와 미래를 보여주는 뉴스
- 언제 어디서나 모든 매체에서 만날 수 있는 뉴스
-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 대한민국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뉴스

# CBS가 대한민국 No.1 TV뉴스채널을 만듭니다!

'대한민국 뉴스의 대명사' CBS가 '인터넷 뉴스의 최강자 노컷뉴스'의 신화를 넘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보도전문채널(보도PP)에 도전합니다.

**CBS와 미래를 함께 하실 투자자를 찾습니다.**

CBS는 섬김과 나눔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자신있게 약속드립니다.

- 파트너 절대 존중
- 투자자의 조기 실현
- 주주 가치 극대화

참여방법: 자세한 참여방법은 CBS 홈페이지(www.cbs.co.kr)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연락처: 서울 본사 신규미디어사업본부 02-2650-7080~4 / 전국CBS 지역방송본부 총무국  
 이메일: goodnews@cbs.co.kr

국회위원에 '2억 2천' 이주근수 조유미 넘어가길라 노컷뉴스 사회 2010-04-06

국회의원에 '2억 2천' 이주근수 조유미 넘어가길라 노컷뉴스 사회 2010-04-06

국회의원에 '2억 2천' 이주근수 조유미 넘어가길라 노컷뉴스 사회 2010-04-06

국회의원에 '2억 2천' 이주근수 조유미 넘어가길라 노컷뉴스 사회 2010-04-06

국회의원에 '2억 2천' 이주근수 조유미 넘어가길라 노컷뉴스 사회 2010-04-06

국회의원에 '2억 2천' 이주근수 조유미 넘어가길라 노컷뉴스 사회 2010-04-06

국회의원에 '2억 2천' 이주근수 조유미 넘어가길라 노컷뉴스 사회 2010-04-06

국회의원에 '2억 2천' 이주근수 조유미 넘어가길라 노컷뉴스 사회 2010-04-06

국회의원에 '2억 2천' 이주근수 조유미 넘어가길라 노컷뉴스 사회 2010-04-06